

최근 독도의 그림이 들어간 환경 생태계 우표 발행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행태가 가관이다. 한 장관은 자기들도 독도가 들어간 우표를 발행하자고 하는가 하면, 수상은 독도가 엄연히 자기네 땅이라 천명하였다.

그 장관은 얼마 전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발언을 하여 양국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었던 사람이고, 수상은 답화 발표에 앞서 전격적으로 일본의 전범이 묻혀있는 아스쿠니 신사(靖國神社)를 참배함으로써 식민지통치에 치를 떠는 우리 국민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준 인물로 일본 극우파의 대변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그들의 영토라고 억지 부리는 것은 그 섬에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다. 독도와 그 주변에는 이렇다 할 자원이 없다.

그런데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영토확장에 집착이 강한 섬나라 사람의 근성 때문이다. 중국·대만과는 조어도열도(鳥島列島)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열도의 반환을 둘러싸고 집요하게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동경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사쿠라지마(櫻島)는 간조 때에 약간 물 밖으로 나오는 암초와 같은 곳인데 이 곳에 얼마 안 가 어떤 양의 시멘트를 쏟아 부어 영유권을 주장

하는 사람들이 일본인인 것이다.

일본에게 독도는 1905년 러시아 발틱 함대의 해전에서 승리한 일이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 때문에 대한제국도 전혀 모르게 무단 점유한 일이 있던 유서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독도는 엄연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국제법상 영토점유 요건으로 제시되는 것은 어느 나라가 보다 밀착 인지하고 실질적인 점유를 계속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15세기 초엽인 조선 태종(太宗) 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도를 공식적으로 인지

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 제2조(鬱陵군청을 台霞洞에 두고, 그 구역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관할함)로서 근대적 영토 편입 요건을 갖추었다.

그 중간에 한반도 해역 전역에 내려진 해군정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잠깐 독도의 존재가 잊혀진 적이 있었으나, 강원도 연해지방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인지하였고, 18세기 말엽인 조선 숙종(肅宗)때에 울릉도 수토제도가 확립되면서 다시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인지의 영역을



불자 세상보기

임 영 정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독도, 우리땅 독도여!

넓히고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 17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그것도 울릉도와 혼동하는 정도였고, 이 같은 상황은 20세기 초엽 시마네현 고시(島根縣告示) 직전에 와서야 인지가 확정되는 정도였다.

또 이 고시가 국제법상 영토편입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이후의 일이었던 데다가 일개 지방청의 고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고, 전략상 필요에 의해 취해진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여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억지주장을 계속하는 까닭은 제2차 대전의 패망을 만회하기 위한 우익정치인의 배외감정 양양책과 저널의 무분별한 논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조차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아직까지 망언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우유부단함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하겠다. 게다가 잠깐 받아들였다가 곧 씌어버리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저들이 깔보는데도 한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승가교육을 '선교육 후독도' 체제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분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선행시키고, 그런 다음에 비구(尼)계를 받도록 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높은 자질의 수행자를 보양하여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겠다는 조계종단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그만큼 수많은 개선책이 제시되어온 승가교육의 체제를 혁신하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이번의 개혁이 피상적인 제도의 개선에 그치지 말고 승가 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근본 해결책을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요청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선독도 후교육'이나 '선교육 후독도' 나가 승가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피교육자인 스님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또 불교 다방면의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내용들이 제공되지

승가교육이 중요한 이유

않는다면 단순히 선후를 뒤바꾸는 것으로 승가교육이 혁신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교육내용과 현대적인 요구를 어떻게 접목시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박제는 교과과정을 통일적으로 조정하여 가장 효과적이고도 밀도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교육 기관을 통합하여 좀더 대규모의 교육장을 확보하고, 그 교육장의 시설과 교수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승가 교육이아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는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만 승가의 권위가 높아지고, 또 질 높은 피교육자(스님)를 확보할 수 있다.

불교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스님들의 자질과 권위를 불교 신도들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높이 인정하는 것이 불교 중흥의 초석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종단의 총력을 모아 장기적인 계획 아래 불교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체제 갖추기를 촉구한다.

■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아름다운 참회

악업을 저질렀어도 마음을 돌려 고백하고 악사의 잘못을 반성해 깨닫고 마음을 집중하여 거듭 참회한다면 과보를 받지 않는다.

(분별악업보응경)

후안무치(厚顔無恥). 한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특히 국회의원의 하는 꼴에 이보다 합당한 말이 있을까 싶다.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할 버려진 의원 체포품의 안 부결은 그들의 특수한 신적구조(보살) 수준을 안면(皮부)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어떤 집단에도 예외적 존재는 있는 법. 6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의원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참회록은 쓰레기더미 속에 짓눌려 시들어가던 희망의 싹이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묵인한 무리함이 부끄럽고, 묵인을 넘어서서 어느새 동화되어간 무감각함이 부끄럽고, 미숙한 자기 확신을 진리인양 착각한 무지함이 부끄럽고, 세계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심 무시하고 배척한 편협함이 부끄러우며, ...선배들에게 감히 용퇴를 요구한 그 용감함이 부끄럽습니다. ...조그마한 기득권이라도 이를 버리려는 데에서 정치개혁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던 대로 이제 실행하려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내탓이요' 정서가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세훈 의원의 결단을 다른 의원과 비교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초점을 비껴가는 일이다. 그의 돌보임은 '참회'에 있다.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다웠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유난히 참회가 강조된다. 허물없이 살아가고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아예 허물을 모르거나 알고도 고쳐주지 않는 데 있다. 인간됨을 지키려는 거룩한 몸짓, 그것이 참회다.

■ 윤제학(아동문학자 / 본지 논설위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불교계 나눔운동에 박수

올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이 예년의 60% 수준이라고 한다. 높은 청년 실업률, 정치권의 대선자금 공방 등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

올해 불교계에서 '나눔운동'을 벌인다는 기본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조계종을 비롯한 태고종 전대종 진각종이 소외계층을 위해 각종 후원활동과 모금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불교계의 나눔운동이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자들의 동참이 없다면 벌이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눔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동주체인 종단과 단체는 물론 이에 참여하는 불자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홍보, 회원관리, 이벤트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나눔운동은 불자들의 구태의연한 생각과 태도를 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음을 낼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2004년은 이웃과 함께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마영찬(이천시 광고동)

도롱뇽 캠페인의 뜻

얼마전 대구 시내에 나갔다가 지울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이 대구에 와서 홍보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봤다. 신문지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 도롱뇽 소수현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를 돌아보게 했다.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와서 있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텐데... 무심코 지나칠 법한 스님이 중간에 있으니 불자로서 지나칠 수 없었다. 매스컴에서 봤던 지울스님은 생각보다 참으로 자그마한 체구에 평범한 비구니 스님이었다. 그러나 대구 도심 한복판 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의지하는 듯 생명의 어머니 모습이었다. 진실을 가지고 선 저 당당함이 지금까지 마구 밀어붙였던 불도저를 멈추게 한 것이리라.

누구나 우리가 사는 환경이 중요하다 것을 알고는 있다. 나 역시 환경문제의 심각함과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을 뿐 마음으로 느끼진 못하고 있었다. 이제 도롱뇽의 친구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이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판장님께 드리는 아이들의 열서'를 봤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이들은 만물이 함께 존재하고 살고 작용함을 얘기했다. 그대로 진리를 보고 있음이리라. 실로 지구에 인간만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린 학생들의 서툰 그림에서 발하는 생명의 빛은 지나는 이들의 발을 멈추게 했고 동화되게 했다. 아이들은 "우리가 편하려고 도롱뇽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 이잖아"라고 했다. 부디 이 생명의 소리가 모든 이들의 가슴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며 소수현안에 서명을 했다.

배수경(대구시 황금동)

비구니 스님들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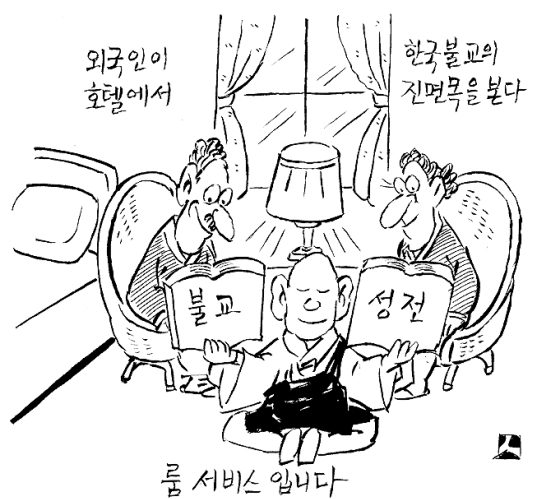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에 비구니부 신설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첫 총무원 비구니부장을 임명한 데 이는 파격적인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비중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반해 불교계는 이런 변화에 둔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심지어는 사회를 선도해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사회적 병폐인 여성 차별의 온상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조계종 총무원의 비구니부 신설 움직임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를 시작으로 종단내 존재하는 비구니에 대한 차별을 점차 개선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올해 8월에는 세계여성불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층 변화된 한국불교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정순진(서울시 상계동)

'연대' 민명

심민섭



룸 서비스입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매자 성 광 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통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점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통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통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베개

02)447-5300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슬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질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역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슬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슬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주)아이코스슬루션 http://www.eyecos.com

☎ 0311836-0992 FAX : 031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